

# 2024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4.2.27.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5	2	14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이진희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3	-	2	10	-	10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 다. 전월(1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서산 시내버스 파업 보도> 지자체마다 버스조합에 비슷한 돈을 줄 텐데 다른 지자체는 어떤 상황인지 비교 분석해 주었으면 함	다른 지역의 버스들은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과 대책은 없는지 기획 보도를 하겠음 <24. 2월 조치>	'24.1월
보도	<서천 전통시장 화재 보도>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잘 보도 해주셨는데 화재 원인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게 잘 보도해 주었으면 함	화재를 미리 예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굴 보도하고 있고 매뉴얼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보도를 이어가겠음 <24. 2월 조치>	'24.1월
보도	<0시 축제 보도> 올해는 축제기간을 더 늘린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전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함	축제 개최 전에 미리 축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취재해서 보도하겠음 <24. 2월 조치>	'24.1월
보도	<금산군 대전시 편입 보도> 편입 이슈를 행정적,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실제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지역 편입 이슈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음. <24. 2월 조치>	'24.1월
보도	<총선 관련 보도> 신당과 탈당 등 정치공학적 보도가 아닌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주었으면 함	후보자 중심이 아닌 유권자 중심의 보도를 이어가하겠음. 여론 조사를 통한 이번 총선의 표심이 어디 있는지도 분석하겠음 <24. 2월 조치>	'24.1월
보도	<지방시대위원회 보도> 지방자치 관련 보도는 지역에서 중요한데 단신처리만 해서 아쉬운데 자세하게 다루주었으면 함	여러 가지 사건사고 보도 관계로 소홀한 부분이 있음. 지역 의제와 이슈에 좀 더 주목하겠음 <24. 2월 조치>	'24.1월
보도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보도>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 지원프로그램이나 절차 소개 등의 보도를 해줬으면 함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한 문제점과 정부 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뉴스들을 발굴 보도하겠음 <24. 2월 조치>	'24.1월
교양	<시사M-총선 분석 토론> 서울에서도 방송하는 총선 내용이 아닌 패널들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분석을 해주었으면 함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슈 중심으로 분석을 한 것인데 '시대공감'을 통해 지역의 이슈들을 점검하겠음 <24. 2월 조치>	'24.1월
교양	<시사M-지역살리기 메가시티> 메가시티가 지역소멸의 해법처럼 반드시 해야 하는 논조로 진행을 했는데 반대 입장들도 다루어주었으면 함	여러 가지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중 하나로 메가시티를 먼저 다룬 것인데 재런칭시 다양한 대안을 다룰 때 주의깊게 살펴보겠음 <24. 2월 조치>	'24.1월
교양	<시사M-원인과 해법 제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그 원인 분석과 해법 제시가 조금 아쉬운 느낌을 받음	해법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 담당 PD들에게 주지시켜겠음. 설부른 대안보다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함 <24. 2월 조치>	'24.1월
교양	<보이스피싱 TV캠페인> 주변에 보이싱피싱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음. 젊은층을 겨냥한 TV캠페인을 방송해 주었으면 함	보이스피싱도 일종의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음.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제작 방송하겠음 <24. 2월 조치>	'24.1월
기타	<지역민과 소통하는 슬로건> 대전,세종,충청을 줄여서 '대세 충청'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민과 소통했으면 함	지역중심, 사람중심, 대세 충청 등 슬로건으로 참고할 만한 문구들을 활용하도록 고민하겠음 <24. 2월 조치>	'24.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4년 2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22.05.01~24.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22.05.01~24.04.30
위원	박이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22.05.01~24.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회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회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선거 보도시 시민의견 수렴 방식> 지역 언론관련 교수 또는 정치 행정 관련 학회, 연구소와 연계해서 질문을 받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선거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공정한 의대 증원 및 총선 보도> 의대 증원과 총선 주제는 양극화 되어 있어서 보도가 어렵겠지만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보도를 해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지역병원 상황 안내 보도> 지역 병원은 아직 환자를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안내가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보도	<유현진 훈련 보도> 스포츠 뉴스에서 다룬 내용인데 지역 뉴스와 스포츠 뉴스에서 똑같은 내용을 길게 다뤄서 피로감이 들었음	회의록 첨부	○		
보도	<지역민 관련 보도 비중 확대> 총선 보도로 인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보도가 적은데 그 비중을 더 늘려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오늘M-온라인 전시회 안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청춘 컬렉션 사진 전시회를 잘 봤는데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자주 다뤄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계룡 7남매는 방송 길이가 짧다 보니 시청자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꼭지로 다뤄주면 좋겠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지역잡지와 연계한 방송 기획> 월간 옥이네, 토마토와 같은 지역 잡지와 연계해서 지역 사람들의 얘기를 방송으로 실어주면 더 풍성한 기획이 될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청자게시판)	<편향적 패널 출연 방지 대책> 편향적 특정 패널의 말실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청자게시판)	<라디오 송출장비 교체 관련> 음질이 전 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라디오 송출장비 어떤 것을 교체한 것인지?	회의록 첨부	○		

2024년 2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4년 2월 27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손병우 위원장,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이진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지금부터 2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총 10분 중에 7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시청자위원님 3분이 오는 4월 30일자로 임기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 내일부터 3월 29일까지 후임 시청자위원을 공모하는데요. 많은 관심부탁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 회의가 김환균 사장님께서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3년간의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 인사말씀은 잠시 후 부탁드립니다.

먼저 2월 대전MBC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오늘까지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총 6건입니다. 출연자 불만 2건, 캠페인 내용불만 1건, 홈페이지 이용불만 1건, 기타 음원사용 문의 및 음질 문의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24년 2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고별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말미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좋은 의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저도 현 총장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것들을 쪽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도 지난 1년간, 마정미 위원님과 김정동 위원님은 2년간, 대전MBC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사장님의 따뜻한 모습과 함께 아주 정확한 방송에 대한 관점들을 접해왔는데요. 오늘도 그런 시청자위원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동 위원

초기부터 지역성에 대한 고민부터 같이 시작했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보도가 대부분 선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부터 대전MBC가 새로운 시도를 했던 걸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경관식 보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묻기 어려운 것들을 언론이 묻는다 라는 시스템으로 갖춰가는 모습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당시에도 참여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후보들에게 정책 관련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묻고 그걸 방송으로 보도하는 시스템의 시작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에도 총선이나 다음 선거에도 계속 도입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당시에 고민을 보면 질문받기가 일단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열어서 시민들이 직접 질문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 어려움이 드셨던 것 같은데요.

아직 여유는 있으니까요. 대전MBC에서 시민분들에게 직접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언론 관련 교수님들도 계시고, 정치 행정 사회 관련 학회들이나 대학, 연구소와 같이 연계해서 이런 질문들도 뽑고 시민들에게 질문도 받는 형식으로 보도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음은 마정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마정미 위원

우선 보도에서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의대 증원 확대와 거기에 반발하는 전공의 이탈 문제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열심히 다루고 있던 게 눈에 띄었습니다. 또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공천과 경선 그리고 그 잡음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건의 주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어서 참 보도하고 리포트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보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월 24일에 '노숙인 돕는 탈 노숙인' 보도가 있었는데요. 화재나 재난 등 굉장히 나쁜 뉴스들 사이에서 뭔가 새로 발굴한 곳 뉴스라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중 캠페인 <당신이 주인공입니다>의 계룡시 7남매 캠페인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시청자 의견은 조금 다른 입장도 있더군요. 워낙 짧다 보니까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른 쪽지로 다루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사M이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M에서 다른 2월 7일자 이슈엔 현장 그리고 2월 14일, 22일 중대재해 처벌법과 늘봄학교, 의대 증원 문제 이런 중요한 것들을 나름대로 소화해냈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내컷>은 MBC충북하고 대전MBC하고 만든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전에서 다른 아이템이나 접근 방법이 훨씬 더 어필해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2월 1일자 그림책에 흔들리다 감자꽃 김민서 씨 방송과 15일에 위대한 일상의 소소한 기록 '월간 옥이네' 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 쪽지가 그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의 뉴스를 전하고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좋은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저도 '월간 옥이네'를 구독하고 있는데 옥천이니까 충북에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장래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장래숙 위원

<오늘M>에서 '새롭게 걷다'라는 미술전시를 다뤘는데 감동 있게 봤고요. 지역사회에서 예술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는데 청춘 작가들이 참여해서 청춘 컬렉션이라는 사진 전시를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새롭다고 느꼈는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온라인에서도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예전에는 미술품을 보려면 꼭 현장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안내로 통해서 시민들이 온라인 속에서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자주 다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대생 증원 뉴스관련 해서는 어제 또 대전에서 80세 노인 사망한 사건, 응급 상황, 지역 현황들을 잘 알려주셨는데 저는 계속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뉴스가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답답함을 느껴서 기사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지역 병원은 원래 전문의가 없는 상황

에서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 병원은 아직도 환자를 받아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피로감이 느낀 뉴스는 류현진 뉴스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류현진 오키나와 훈련 지역 뉴스를 보면서 스포츠 뉴스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뒤에 똑같이 스포츠 뉴스에서 다뤄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또 대전MBC에서 류현진 오키나와 현장에 가셨나 봐요. 인터뷰를 3명 하는데 인터뷰 하고 류현진 공 던지고 인터뷰 하고 류현진 보여주고 또 인터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보도 아닌데 일반 뉴스 시간에 그렇게 긴 뉴스를 내보내는 건 조금 불편하지 않나 생각했고 나눠서 하든 아니면 스포츠 뉴스에서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

이 뉴스를 안 봐서 그런데 듣기만 해도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은데요.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총선 시기에 방송사 특성상 보도 내용들이 정치권 얘기라든지 혹은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지역 방송의 입장에서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나, 같이 조명해 볼 만한 이야기들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생각을 대전MBC 방송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마 취재 인력의 한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이야기나 스토리를 계속 발굴해내는 것도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아까 언급됐었던 '노숙인을 돕는 탈노숙인' 이슈 같은 것들을 같이 조명하고 계속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비율들을 일정부분 늘려보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인생 내컷>에서 '월간 옥이네' 얘기가 나왔는데 '월간 옥이네' 창간호 때 제가 나왔거든요. 옥천 신문에서 같이 시작돼서 완전히 지역 로컬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잖아요. 대전에 있는 '월간 토마토' 같은 지역 잡지도 매월 지역 주민들의 얘기들을 계속 콘텐츠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콘텐츠를 대전MBC가 온전히 독립적으로 다 만들어내지 못하니 지역 월간지와 연계해서 글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지역 월간지가 하고, 영상으로 방송 송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MBC가 담당하면서 지역 시민들의 얘기들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정보가 바뀌면서 민간에서의 여러 창의적이고 공익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된 게 사실인데 지역 방송사가 그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들을 같이 주목해 주면 위축되어 있는 현장들이 다시 또 생기가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야구장 이슈를 다뤄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야구장이 있는 부사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인들을 제외하고는 야구장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이유가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밤늦게까지 소리가 너무 많이 나고 교통 체중도 생겨서 분명히 지역사회나 지자체에 기부금 형식이든 사회공헌 형식으로든 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소음 공해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재원이 직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 쓰여 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지역 주민 입장에서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게 또 잘 되면 야구장이 있는 다른 도시에 야구장들이 실제로 내고 있는 여러 사회공헌 기금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인복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인복 위원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카이스트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나 들었더니 '난동'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패널분이 처음이 아니고 게시판에도 보니까 다른 건도 있었고,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광주사태'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고, 지난번 지방 총선에서는 지방 총선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쪽 정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있었던 말이죠.

방송이나 게시판에서 대전MBC의 의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출연하면 거꾸로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패널에 대해서 방송국 내에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한쪽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인사를 균형 있게 출연시킨다 하더라도 너무 극단적인 인사의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오늘은 훈훈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회의가 있었는데 MBC 얘기가 잠시 나왔어요. 대전MBC 어린이합창단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아버지께서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였고 옆에 있던 자녀 어머니도 추천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또 저

는 라디오 방송을 잘 듣지는 않는데 <FM모닝쇼> 팬들이 그곳에 있어서 회의 중간 중간에 MBC에 대한 칭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오늘M>에서 중대재해나 의대 증원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늘봄 학교를 관심 있게 봤는데요. 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워줄까 라는 주제로 학부모와 교사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점과 다양한 의견들을 다뤄줘서 시청자들이 잘 알아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복지 입장에서 보면 돌봄이 교육청 산하의 내용이라고 하면 또 복지부나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에서도 돌봄 영역이 같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중요한 문제인 돌봄과 관련해서 다른 쪽지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내컷>은 지난달에는 공간과 사람을 묶었다면 이번 달은 글과 기록, 책 이런 부분들을 사람과 묶어낸 달이었다고 느꼈고요. 굉장히 감동도 있었고 3월은 어떤 기획을 하실까 하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뉴스는 다들 얘기하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역과 사람을 묶어내시는 역할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아주 섬세한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세계 인권선언 75주년 특집 다큐 <조작된 죽음 81 플러스>를 봤는데 작년 12월에 방송한 건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대전 MBC 기획 프로그램들이 아무래도 지역성 쪽으로 있었는데 이 다큐는 지역민의 관심을 뛰어넘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었을까 그 이상의 시대적인 사명을 받아 단순히 지역의 테두리에만 머물지 않는 관점에서 아주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중간 중간에 감정적으로도 크게 반응이 오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단아한 영상과 함축적인 영상들로 담백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너무나 뜨겁고 처절한 내용인데 감정이 과잉되지 않고 재연 화면들이 길지 않고 상징적으로만 탁탁 들어가는 것들로 해서 보는 사람이 그 안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강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영화에서 시작해서 TV가 주된 매체였다가 다시 또 몇 년 전부터는 영화 쪽에서 대중적인 접촉면도 많이 넓어져 왔는데요. <조작된 죽음 81 플러스>는 마치 최근에 그런 잘 만든 다큐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완성도 높은 그리고 시대정신에 딱 맞는 기획과 함께 매우 인상적이었던 작품으로 감동적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이 한 작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위원님들의 의견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거 보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4.10 총선이 50일 남게 다가왔습니다. 총

선 보도는 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첨예하고, 특히 우리 지역의 캐스팅 보트로서의 판세를 반영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물들이 집결하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보도들은 정치 보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견지하면서 선거 보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후보자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의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의제를 중요시하는지와 현재 국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도 들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에는 일자리하고 경제 쪽이더라고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따라서 후보들이 경제 회생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정책 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유권자 중심 보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 의견 접수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 해법도 말씀해 주셔서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학회 쪽과 연계를 해서 질문들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런 통로를 통해 유권자 중심의 선거 보도를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총선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의대 증원 관련한 갈등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의사 집단과 정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의료기관들에 대한 시민 불만이 막 드러난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흔히 말하는 응급실 땡땡이라고 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어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로감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면 보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점은 시민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이므로 보도 방향들이 그쪽으로 지향돼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류현진 대형 이슈 관련해서 지역 방송 3사가 오키나와 캠프에 갔습니다. 통상 저희가 오키나와 캠프에 취재를 가도 나중에 분석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약간 속보 경쟁이 붙은 상황이라서 첫날 저희가 류현진 복귀 보도를 하고 뉴스 유튜브에 17만 회를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상당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서 뉴스 아이템을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첫 보도는 막내 기자가 트레이닝 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부터는 독수리 군단의 올해 전력 분석이라든지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이라든지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정치 뉴스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뉴스도 중요한데 그 주요 의제라든지 시민들의 삶에 대한 뉴스가 아무래도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팀 위주로 재편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과거에 경쟁력이 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론조사도 준비하고 있고 정치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 보도에 대해서 올 한 해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프로스포츠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아이টে를 다루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기능도 위축된 것 같은데 여러 파트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된다면 총선에 대한 감시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편성국장

올해부터 연중 캠페인으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를 방송하고 있는데 마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불호는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짧은 시간 안에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생 내컷> '월간 옥이네'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이진희 위원님께서 2월에 글과 기록 중심으로 아이템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복하고 기획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월간 옥이네'는 중복 아이템인데요.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퍼 로컬리즘에 충실한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연계해서 양쪽 PD들 모두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M>에 대해서 장래숙 위원님께서 전시회 관련해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다양한 전시회나 공연 소식을 저희가 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디오 패널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년에도 광주사태 라는 표현을 써서 그 당시 직접 청취자들에게 개인적인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에 명시된 부분이라고 얘기 했었고, 최근에는 대전 시장 단체복 문제나 아까 말씀하셨던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생방송이고 패널들한테는 사전에 저희가 원고를 받거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사실 있습니다.

다만 진행자가 곧바로 제지를 하고 과한 표현이라든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라는 언급을 해주죠. 그리고 방송 말미에 다시 한 번 청취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요. 라디오 프로그램도 개편한 지 오래돼서 차제에 꼭지라든지 출연자분들이라든지 개편을 고민하겠습니다. 진행자를 포함해서 개편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진희 위원님 칭찬해 주신 대전MBC 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 1년 만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요즘 합창단 꾸리기가 쉽지 않은데 극동방송 합창단은 오래됐고 후원도 많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그 외의 합창단들은 잘 되지 않거든요. 운영 주체가 특별한 뜻이 없으면 수입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하고 있고요.

저희 합창단을 중심으로 성과가 좋으니까 주변에서 오케스트라도 해보라고 해서 대전MBC 소년소녀 오케스트라도 창단을 합니다. 3월 중순까지 모집 광고가 나갈 건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대전MBC 공익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 소문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령은 초등학생부터인데 오케스트라는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확장시켜서 류명우 지휘자라고 대전시향 부지휘자였던 꽤 덕망 있으신 분인데 저희가 초빙을 했고 무엇보다도 구성보다는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기대하는 대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공연도 많이 할 것입니다.

## 이은표 간사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마정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칭찬인데요. <조작된 죽음> 마지막에 대전MBC 소년소녀합창단이 노래하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 같고 메시지하고도 잘 어울렸습니다.

## 손병우 위원장

네 맞습니다. 끝날 때 소년소녀 합창단 노래는 감동적이었습니다.

## 이은표 간사

마지막으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김환균 사장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손병우 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 또는 2년 동안 김환균 사장님과 함께 시청자위원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만나서 대전MBC 프로그램을 함께 이야기하는 좋은 자리를 가졌는데요.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준비해 오셔서 좋은 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균 사장

<조작된 죽음>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영화 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작년 8월 중순쯤 70대 중반의 할아버지께서 백팩을 메고 사장실로 찾아 오셨는데요. '최종선이올시다. 최종길 교수가 제 형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알았는데요.

최종길 교수의 고향이 공주 반포면 이거든요. 학교 다닐 무렵에 인천으로 갔지만 우리 지역과 연관이 없지도 않고 의문사 이후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영화도 이런 영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는 동생이 형의 손을 잡고 갔는데 형이 죽은 거죠. 그 이후로 동생이 겪었을 괴로움... 나중에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 계속 애쓰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방송을 하라는 명령인가 생각을 했고요. 사건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더라고요.

담당PD인 김지훈 부장이 잘 만들었습니다. 저도 다큐를 만들어봤지만 내레이션 없이 인터뷰로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감정의 절제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사건은 동생분이 책을 냈는데 최종선과 최종길 교수 형제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유학생들 중심으로 이 책을 영역본으로 내자고 했는데요. 헐리우드에서도 영화 소재로 관심 가져볼 만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공주 반포면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거기 나오는 김정남 선생님도 이 지역 출신이고 그 당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이고 우리 지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전MBC 시청자위원회는 정말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국장님들도 시청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가능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에게도 생산적인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MBC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기를 꼭 다 채워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지금에 이르렀고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늘 가슴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하고 떠날 때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떠난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의 입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김정동 위원님, 마정미 위원님 2년 동안 정말 애써주셨는데 떠나시더라도 MBC에 대한 애정을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표 간사

이상으로 2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